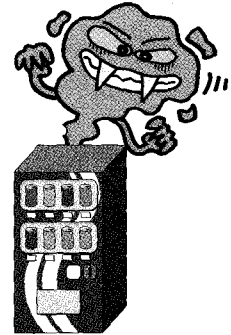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그 일곱 번째 보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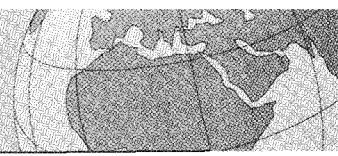
과거 어린이들의 화상문제로 필드에서 퇴출을 당한 달고나자판기가 안전장치를 보완하지 않고 필드에 등장해 다시 과거와 똑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전장치도 해 놓지 않고 기계만 팔고자하는 몰염치한 사업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자판기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서는 필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관련업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강릉] 달고나 자판기에 어린이 화상 속출

추억의 떡거리인 속칭 ‘달고나’를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화상 사고가 수시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릉지역 각 초교 앞 문구점 등에는 국자에 설탕과 소다를 넣고 가열해 사탕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속칭 ‘달고나 자판기’가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달고나 자판기’는 과거 70, 80년대 학교 앞 노점에서 연탄불에 국자를 달궈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로 철판 아래에 달려 있는 전기코일에 열을 가하는 기계식으로 바뀌

어 달고나 3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자판기에 200원만 넣고 직접 달고나를 만들면서 가열된 전기코일이나 달궈진 국자, 설탕액 등에 손을 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이 ‘달고나 자판기’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네티즌 황미정씨는 강릉시 홈페이지에 “달고나 자판기 때문에 손등이나 손 전체에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문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과자류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조만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원재료와 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만 신고가 의무화 돼 있다”며 “지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가 있다면 즉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동전교환기 늘어 나나 자판기 업자에게는 그림의 떡



최근 동전교환시 수수료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은행들이 동전교환이 가능한 자동화기기(ATM) 도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손과 관리비용이 적게 들고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량주화 투입 등으로 고장이 잦고 포화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아 버스사업자나 자판기업자들은 정작 이용할 수 없는 점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은행권에 따르면 430여대의 동전교환 ATM기를 배치한 국민은행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0여대를 추가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권이나 신설점포를 중심으로 동전교환 자동화기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배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기기에 대한 거부감만 해소되고 작동 오류에 따른 관리만 잘해주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서울 난곡, 남대문, 충무로, 창신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4개 점포에서 동전ATM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기와 업무효율성 등에 대해 점검한 후 동전수요가 많은 개인점포 280여개 가운데 10% 점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청량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5개 점포에서 동전교환 ATM을 운영중이며 하나, 조흥, 외환은행도 기기 사업자와 접촉하는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동전교환ATM이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아 버스사업자나 자판기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물기나 기름기, 불량동전 등의 사용으로 고장도 잦은 편”이라며 “동전교환ATM이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저가호텔 돌풍 “서비스 거품 뺐죠”

벨보이 없애기 · 자판기 설치 등 편의제공 인기

I Believe In Service (IBIS · 나는 서비스를 믿는다). 호텔에서 서비스를 빼면 남는 게 없다지만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 (이하 이비스)은 이름부터가 남다르다. “서비스에도 거품이 있습니다. 잔뜩 부풀려 놓고 그 비용을 슬그머니 고객에게 떠넘기면 그게 과연 서비스일까요?”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의 이돈민 총지배인(40)은 이비스를 호텔계의 할인마트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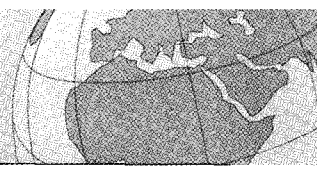
백화점처럼 고급은 아니지만 구색을 갖추고, 가격을 낮춘 할인마트의 개념을 호텔 경영에 도입했다는 것. 실제로 이비스에 들어서면 그 흔한 도어맨이나 벨맨이 보이질 않는다.

“비즈니스 때문에 호텔을 찾는 고객들은 별로 짐이 많질 않아요. 그냥 들고가도 되는데 벨맨이 들게 되면 작은 팁(tip)이라도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거품까지 모조리 빼고 싶었습니다.” 이돈민 지배인의 경영 철학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객실에 있는 미니바에 비싼 음료나 간식을 채워두지 않는 것도 그 때문. 대신 객실복도에 자판기를 비치하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했다.

“호텔만큼 정가제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또 없죠. 할인이다 뭐다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구요. 고객 입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차별인데 이비스에서는 로비 전광판에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내 호텔 총지배인 중 젊은 축에 속하는 그는 1986년 조선포텔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군대 제대 전까지는 한 번도 호텔계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호텔에 가본 적도 없죠. 그러다 군대 선포의 권



유료 경주호텔학교에 진학, 오늘에 이르게 됐네요”라는 이 지배인은 “고객에게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못해낼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시내 ‘불법 자판기’ 시민건강 위협

제주시내 다중복합건물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인 자동판매기가 상당수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커피자동판매기 사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미신고 자동판매기의 경우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내에는 제주공항 구내 및 주차장내에 14개, 제주항내 및 버스터미널 대기실에 8개, 대학교 구내에 69개, 대도로변 및 상가에 470개, 노래연습장·숙박업소 등에 313개 등 모두 874개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제주시가 올들어 이 가운데 655개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가 안된채 영업 중인 107개를 포함, 모두 114개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6개 중 1개 정도가 관계당국에 신고도 안된 불법 자동판매기들인 셈이며, 이번 점검대상에서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미신고 자동판매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미신고 자동판매기가 10개인 것과 비교하면 10배이상 불어나는 등 미신고 자동판매기 영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에서는 “영세한 시민들이 부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판매기의 경우 운영자의 무

지 등으로 신고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고의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피하고 수수료 및 면허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업자들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판매기 판매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에만 급급해 운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신고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계도 후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업소중 2개소는 점검기록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을 해도 점검결과가 기록돼 있지 않았고 1개소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인도를 점령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4개소는 폐쇄조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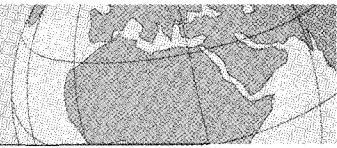
제주, 자동판매기 절도범 극성

제주시 자판기가 수난시대이다. 무신고 자판기들이 지탄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는 극성인 절도범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침체로 돈이 될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새벽시간대 도내 19곳의 커피자판기에서 동전이 털리는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4시께 제주시 연동 J수산물판매업체 앞 커피자판기. 열쇠구멍 쇠붙이를 휴대용 전동드릴 등으로 절단한 뒤 꺾쇠를 제치고 자판기 문을 열어 10여 만원의 동전과 지폐를 훔쳐갔다.

피해자 양모씨(57)는 “인근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심야에 사람 왕래도 많은 곳인데도 절도범이 대범하게 도구를 이용해 자판기를 부수고 동전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23일 하루 경찰에 접수된 커피자판기 동전 도난사건은 모두 19건으로 제주도 지역 16곳, 남제주군 남원지역 3곳의 자판기가 모두 털렸다.

돈을 도난 맞은 커피자판기는 모두 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경찰은 범인의 열쇠구멍 틈에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등 제품 구조를 잘 아는 전문털이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범행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일어났고, 제주시는 물론 남원 지역에서도 발생한 점에 미뤄 최소 3명의 공범이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서 동시에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서 관계자는 “열쇠구멍 쇠붙이를 절단하는 수법은 이전에 없었던 범죄수법이어서 다른 지방에서 온 원정 절도범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판기 컵과 커피를 판매하는 관계자는 “지난 9월에도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설치된 자판기 등 제주 시내 자판기 4곳이 털렸다”고 말했다.

커피자판기 동전 절도는 지난 9월 경기.경북.전주 등 전국 곳곳서 발생했으며 붙잡힌 범인 대부분은 무직자로 가진 돈이 없어서 자판기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자판기에서 동전을 절취해도 기계가 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유자들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日 불법유통 변조 500원 주화··이번엔 국내 逆유입 ‘주의보’

4년전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에서 ‘500엔’으로 대량 유통돼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이 동전들이 현재는 무용지물로 전략해 역(逆)유입될 소지를 안게 됐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K씨는 최근 선반기계로 한쪽 면이 매끄럽게 깎인 500원짜리 동전 10여 개를 견본으로 제주에 갖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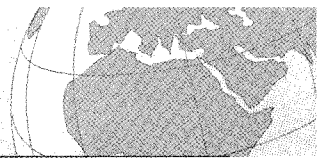
한때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의 500엔 동전과 재질 및 직경이 같은 데다 두께와 무게 차이도 미미해 한쪽 면을 깎아 약간의 무게만 줄이면 일본에 있는 자판기에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밀반출이 속출하는 등 일본 현지에서 대량 유통됐다.

환율로 대략 10배의 차이가 나 이 차익을 노려 2000년 6월 500원짜리 동전 60만개(3억원어치)를 선반기계로 표면을 갈아 밀수출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일본 경시청은 1999년 한 해 동안 문제의 500원짜리 동전 82만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일본 대장성은 2000년 8월부터 변조된 500원 주화 유통 차단을 위해 새 500엔 동전을 발행했고, 자판기도 문제의 500원 주화를 인식토록 해 대량 유통됐던 이 동전은 이후 사용이 불가능해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재일교포 K씨는 “과거 문제가 됐던 이 동전들이 오락기에서 많이 나왔으며, 한국에서 액면가 ‘500원’으로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갖고 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주화인 경우 한쪽 면이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새 동전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문제의 500원 주화는 일본에서 불법 유통됐던만큼 국내에서 대량 유통시킬 경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고발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한국은행을 통해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日, 새 지폐 발행으로 10조원 부가가치유발 기대 = 자판기 교체에 6천 21억엔 소요, 경기 유발 효과 클 것으로 기대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한 일본이 새 지폐 발행을 통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10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최근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새 은행권 제조와 현금입출금기, 자동판매기의 교체 등에 7천561억엔(한화 7조9천3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은 그러나 은행권 제조 비용과 인쇄, 제판, 제본업의 생산유발 효과 3천504억엔 현금입출금기, 자동판매기의 센서 교체, 대체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 1조2천870억엔 등 1조6천374억엔(17조1천8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총 9천905억엔(10조3천95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새 은행권 제조에 2천410억엔 현금입출금기 교체에 1천474억엔 자동판매기 교체에 6천21억엔 등으로 자판기 교체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일본 명목 GDP의 0.2%에 해당한다.

일본은 지폐교체는 정확히 20년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최근 자판기 등에 진짜 지폐와 똑같이 인식되는 정교한 위조지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연간 위조지폐 발생량이 2만장을 넘어서자 재무성과 중앙은행이 첨단 위변조 방지기능을 채택한 새 지폐 발행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왔다.

새로운 지폐 발행계획에 따라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새 지폐 발행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하고 금융기관과 자판기업자들도 현금입출금기와 자판기의 센서 교체 등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미 기존 지폐에 대해서도 주기

적으로 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자판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주주의 배당 등으로 집행하는 대신 장비교체 비용으로 일정부분 사용하면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상당한 생산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부가가치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일본의 지폐 교체물량은 총 102억2천만장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약 3분의 1인 약 35억장의 지폐가 유통중이다.

일,액면가 보다 더 비싼 위조지폐 자판기에서 발견



실제 액면가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정밀한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 영문판에 따르면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埼玉)에 있는 한 자판기에서 1천엔(약 1만5백원)짜리 위조지폐 4백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위폐를 검사한 경찰은 그런데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지폐의 은선을 만들어 붙인 이 지폐는 진짜와 너무 똑같아 감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실제 제조하는데 액면가인 1천엔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위조지폐 사범들이 대부분 가짜 돈을 만들어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이번 위폐사건의 주모자는 단순히 재미나 정부가 만든 돈보다 더 좋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며 “실제로 오래 된 자판기를 위폐로 속여 음식을 사 먹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게임기가 나오면 며칠이고 이를 분석, 허점을 지적하는 오타쿠족이라는 괴짜들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상대로 오타쿠행위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음악 다운로드 자판기 영국서 등장한다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판기 형식의 기계가 영국 런던에서 곧 등장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사업과 함께 무선 인터넷 사업을 하는 영국의 '인스파이어드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IBN)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 음악자판기의 이름은 '더 뮤직'(The music)이다.

이용자들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제품을 사는 것처럼 곡당 1파운드를 주고 음악을 살 수 있다.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다운로드할 음악을 선택하면 휴대폰이나 개인용 음악 재생기로 저장할 수 있다.

회사는 "초기에 공급되는 곡은 200만곡이지만 거의 매일 300여곡씩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미발표곡 일부도 미리 들어볼 수 있다.

IBN은 일단 다음 달 런던의 지하철역인 워털루역과 킹스 크로스역 두 군데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기로 했다. 회사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시내 상점과 주유소, 술집 등에 2만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독일, 오는 2007년까지 나이 확인 가능한 담배자판기로 교체예정



지난 11월 8일 독일 메인즈에서 열린 타벡 2004 전시전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살 수 있는 담배자판기가 전시됐다. 독일에서는 오는 2007년 1월1일까지 모든 담배자판기에 구매자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카드판독기를 장착해야 한다. 독일에서 담배는 16세 이상에만 구매가 허용된다.